

# 비만·당뇨·NASH 치료제 신약 한미약품, '글로벌 경쟁력' 확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美 당뇨병학회서 연구결과 발표  
자체 플랫폼 '랩스커버리' 적용

한미약품이 비만과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개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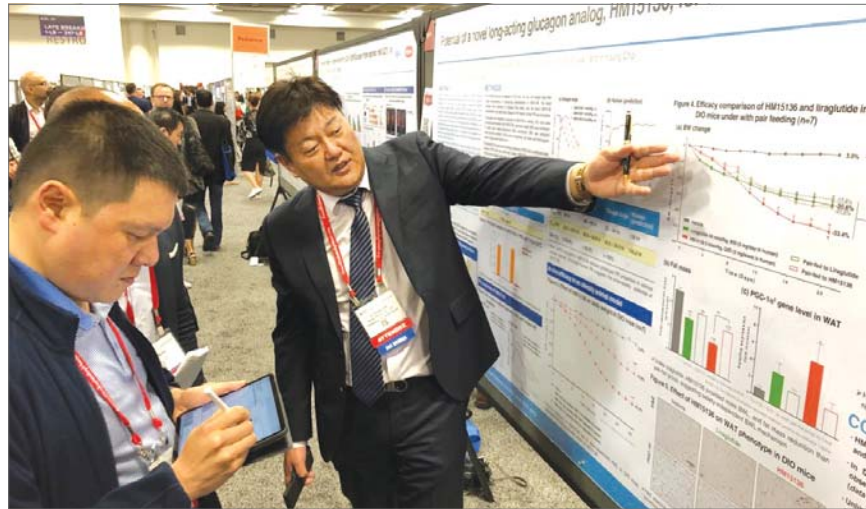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3종에 대한 총 12건의 연구결과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 79회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ADA에서 발표한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3종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한미약품이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랩스트리플 애고니스트(LAPSTriple Agonist)', 비만과 희귀 질환치료제(선천성고인슐린증) 등으로 개발 예정인 '랩스글루카곤 아날로그(LAPSGlucagon Analog)'다.

특히 이번 ADA에서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공동발표를 통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혈당 및 체중 조절 등 다양한 효능들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사노피가 개발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매일 맞던 투약 주기를 주 1회로 늘린 바이오신약이다.

임상을 진행한 리처드 프래틀리 박사 발표에 따르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투약한 환자의 HbA1c(당화혈색소), FPG(공복혈당), 체중, BMI(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



제79회 ADA에 참석한 한미약품연구센터 최인영 상무가 비만치료제 LAPSGlucagon Analog의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가 기저치 대비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 위약군 대비 모든 에페글레나타이드 치료군에서 전당뇨 단계에서 정상 혈당 범위로 회복된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지방간염 치료제(NASH)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LAPSTriple Agonist의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한 미국 프로시엔도 마커스 휴페시 박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LAPSTriple Agonist를 단기 투여해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LAPSTriple Agonist의 후속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동물모델에서 지방간, 간 염증 및 간 섬유화 개선 효능을 확인했으며, NASH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는 우수한 혈중 콜레스테롤 강하 효능을 확인했다.

한미약품 연구센터 최인영 상무는 "LAPSTriple Agonist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획기적인 신약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 연구들을 토대로 후속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또 비만 동물모델에 비만치료제, LAPSGlucagon Analog를 장기 투여한 결과, 우수한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이번 발표는 한미약품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다양한 바이오신약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고 평가받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랩스커버리 적용 파이프라인의 임상 순환과 플랫폼 기술 활용 치료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CJ헬스케어, 수액제 신공장에 1000억 투자

오송생명과학단지 부지서 건설 계획  
한국콜마 계열사 편입 후 최대규모

씨제이헬스케어가 수액제 사업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건설한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공장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자, 수액제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씨제이헬스케어의 신공장은 지난해 4월 한국콜마에 인수된 이후의 첫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연면적 3만 2893㎡(약 1만 평) 규모로 지어진다. 오송에 들어서는 수액제 신공장은 연간 5500만개(Bag)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이 완공되면 씨제이헬스케어의 수액제 생산규모는 약 1억개(Bag)까지 늘어나게 된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지난 1992년 세이프 플렉스백(안전용기)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수액제 사업에 진출했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 임직원들이 오송 수액 신공장 기공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기초수액제, 종합영양수액제(TPN), 특수수액제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수액 신공장은 2020년 완공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이번 수액 신공장 건설은 씨제이헬스케어가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사업 확장을 위해 진행된 투자 중 최대 규모다. 한국콜마는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를 통해 화장품, 제

약, 건강기능성식품을 큰 축으로 하는 스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씨제이헬스케어 변형원 상무는 "이번 신공장 건설은 원활한 수액제 공급 및 제품군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투자를 통해 생산역량을 강화,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신종마약 유입 '원천 차단' 표준물질 21종 추가 확립

식약처, 단속 정부기관에 공급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며, 2017~2018년 확립한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63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 직장인 55% "게임중독=질병 분류 반대"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설문조사

직장인 절반 이상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35명을 대상으로 '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2022년부터 게임 중독을 공식적인 국제질병분류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회원국인 한국에서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반대한다'는 54.6%, '찬성한다'는 45.4%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40.9%)은 '게임을 즐겨하는 편'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중 56.2%가 '가끔 본인이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거의 없다' 37.2%, '매우 자주 있다' 3.7%, '자주 있다' 2.9%였다.

'게임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한다(46%)'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으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다(36.4%)',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15.5%)', '게임 중독의 증상이 12개월(1년) 이상 지속된다(2.1%)' 순이었다.

'게임 중독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직장인 10명 중 7명(69.3%)이 '취미 활동'을 꼽았다. '전문가 상담' 19.7%, '약물 복용' 6.9%, '일단 끊기' 4.2%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 직장인들이 중독된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44.7%, 복수 응답 가능)'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담배(22.4%)', '커피(15.8%)', '없다(8.3%)', '일(5.5%)', '쇼핑(2.8%)', '알코올(0.6%)'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W

이대서울병원

### 비만 전문가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이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기념해 오는 13일 오후 3시 중강당에서 '비만하고 싶지 않다면 꼭 들어야 할 강의'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비만 전문가인 심경원(사진) 교수가 강의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우산·타월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이대목동병원

###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0월~12월, 3개월간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이 권고되는 19개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대목동병원은 평가 결과 거의 대부분의 수술에서 만점을 받는 등 종합 결과 99.9점으로 1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항생제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는 병원임을 인정 받았다. /이세경 기자